

# '삼송리 밥할머니상' 은 약사여래불

###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잠심먹기전 이곳에 와서 불상을 절하고 나면 다리가 덜 아파요. 그러면서도 목이없는 불상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숲속고개 종터 도화공원에 삼송주택마을에서 만난 박소재할머니(77세)는 마을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참배드리다며 불두가 조성돼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밥할머니는 통일로를 달리던 차들도 이곳에 멈춰서서 참배하고 간다고 귀띔했다.

총높이 155.5cm 가슴둘레 85cm의 화강암인 이 석상은 규모가 유독 큰 것이 특징이다. 왼손은 손가락을 펴서 위로 향하였으며 오른손은 수평으로 좌측을 향하고 손등이 아래쪽을 보고 있다. 석상의 아래부분은 특별한 조각이나 문양없이 대좌에 꽂는 형태다. 뒷부분은 자연석에서 볼 수 있는 갈라짐과 굴곡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석상은 목부분에 시멘트가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사람들에 의해 머리부분 복원 작업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문화공보실에서 펴낸 '내고장 가꾸기'와 '고양군지', '한국민속과 문화연구'(김영규·일조각) 등 자료에는 석상을 임진왜란당시 이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한 슬기로운 북한산 밥할머니 장수와 연계하여 민속신앙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양지방은 물론 서울 일부지역에서 '밥할머니'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일부 향토사학자는 지장보살의 화신인 '미륵할미'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석상에 대해 지역교계와 향토사학자들이 약사여래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지역 정서에 밀려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홍윤식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과)는 사전관독 후 "말미가 심해 정화치는 않지만 위축된 어깨와 부자연스러운 손 등이 고려 이후의 형식화된 불상양식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여래불로 추정했다.

이 불상을 수년전 연구해온 정동일(고양시청 전문직공무원, 향토사학자)씨는 "밥할머니와 중복되고 있으나 불상은 장수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며 "군지에는 밥할머니라고 기록하여 민속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약사여래불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약사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동일씨는 "약사여래불이 1910년경까지 현재의 호선 전철기지장부근 길가에 따로 있던 것을 동산리 농모탱이 공덕비인 곳으로 갔다가 1930년경 통일로를 확장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약사여래불은 밥할머니 공덕비가 있던 농모탱이로 옮겨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밥할머니의 화신으로 추앙했으며 임진왜란당시 왜군을 참패시킨 밥할머니의 내력을 알게된 일제가 공덕비의 거머리를 뜯어부수고 석불의 불두를 잘라버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자리의 대자사 주지 자운스님은 "대자리는 대자사를 찾기위해 칩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성촌이다" 전제하고 "세종대왕이 종기가 많아서 대자사를 창건했다고 전한

**"팔목과 어깨 좁고  
 전체적으로 곡선처리  
 고려이후 불상양식"**

- 홍윤식(동국대 교수) -

**세종때 대자사 창건  
 약사여래불 조성한듯  
 불두올려 복원했으면**

- 자운(대자사 주지) -

**밥할머니 공덕비 있던  
 농모탱이로 옮긴후  
 밥할머니상으로 와전**

- 정동일(향토사학자) -

다"며 "불력으로 병을 치료하기위해 약사여래불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경기북부지방에서 가장 큰 가람이었다"는 자운스님의 말을 뒤로하고 대자사지를 찾았다. 통일로 필리핀삼거리 우측으로 농로를 따라가면 소현세자의 능이 나오는데 최영장군 묘까지 계속 1215천여평에 99칸의 대가람이 있었다고 한다. 대자사지는 주위가 검검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산호름이 서출동류(西出東流) 형상으로기가 살아있는 명당지대로 꼽히고 있다. 소현세자의 후손인 이우석씨(72세)의 안내로 대웅전의 12개 주춧돌을 확인해보니 당시 대가람의 위용이 눈에 선하다. 이곳에서는 최근 밭에서 작업하던 중 큰 솜만한 향로가 나왔다. 현재 동국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우석씨는 "임진왜란당시 승병들이 머물던 전락총지로 사람의 대부분은 왜병에 의해 소실되었지만 80년전까지는 사당 4여칸이 남아있었다"며 "석물들은 왜정때 사방공사용으로 실려나갔다고 증언해 약사여래불이 석물과 함께 현재의 3군기지장 강가로 실려나갔다는 추정을 뒷받침했다."

또 문헌에 의하면 태종의 넷째아들인 성령대군은 1418(무술)년 홍역으로 14세에 절명했다고 한다. 유달리 성령대군을 총애했던 태종은 이를 몹시 비통해하며 친히 재물을 짓고 분묘옆에 절을 지었다는 문헌으로 보아 증상의 병고를 치료하는 약사여래불을 본존으로하는 약사도량으로 대자사



가 창건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약사여래불문서는 규모가 어느곳보다 크다는 점에서 보통의 사찰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주위스님들과 향토사학자들의 지적이다.

고양시는 최근 도화공원에 선정비와 밥할머니를 모시기 위한 전각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힘 대자사 주지 자운스님은 "약사여래불로 확인이 되면 불두를 조성하여 여법하게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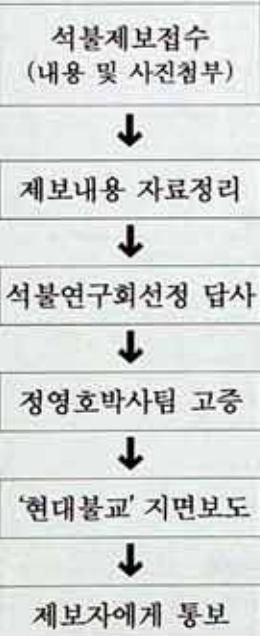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도화공원에 있는 높이 155.5cm 둘레 85cm의 밥할머니상은 대자사 약사여래불일 가능성이 높다

글=김원우 사진=고명배 기자



◇강가에 받치었다가 고양시 동산동 농모탱이로. 다시 1900년에 도화공원으로 옮겨져 지역관리들의 공덕비와 함께 서있는 밥할머니상

돌부처 찾기 어떻게 진행되나



## '돌부처' 제보 전국서 잇달아

현대불교신문과 석불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전국에 산재한 이름 모를 돌부처를 찾아내 역사성과 가치를 복원하는 성보지킴기 불사에 각계에서 전화가 잇따르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불교' 1월 14일자로 사교(社告)가 나간이후 21일까지 전국각지에서 13곳의 석불제보가 접수됐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돌부처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가려져 천재와 인재로 급속히 훼손, 마모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영호박사(한국고원대 박물관장)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문화재의 지정과 보수관리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굴과 지표조사는 거의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현대불교에서 이같이 뜻깊은 운동을 벌여 흔적이 동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근후박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다. 일본의 계간지(석불)는 수천명의 회원을 두고 문화재찾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구소와 미술공예사에서 보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간단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불교 '돌부처찾기운동'에 참여하는 정영호박사(사진 왼쪽)와 이근후박사

우리나라에는 주로 논두렁이나 산속에 석불이 흩어져 있다. 20여년전부터 활동해온 한국석불문화연구회에서만 5백여점의 비지정 문화재 석불사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봐도 그 규모는 짐작이 간다. 특히 미륵신앙의 영향으로 석상은 주로 미륵으로 통하는데 남한지역의 경우 3백7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서는 돌부처를 찾아 성보지킴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불상연구의 권위자인 정영호박사가 학술적 고증을 맡아 성과가 기대된다.

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무심코 바운 돌부처를 고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전국 각사암과 불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필히 사진첨부).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석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단사암의 참여를 바란다.

〈제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32-1523

독자제보 현황 (1월 21일 현재)

1. 불상=전남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구석마을회관에 수백년은 족히되는 불상구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여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함. 제보자 마을주민 홍정식씨.
2. 석가모니부처님=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해룡사 경내에 있는 석가모니불은 50년전 이곳 사찰로 옮겨와 보존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미륵부처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운 당시 마을주민들이 장소가 확실치 않은 민공에서 옮겨왔다고. 모양은 투박해 친년은 축히 돼 보임. 제보자 인공삼님.
3. 돌부처=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동리 전통사찰 운운사 경내에 있는 돌부처가 있는데 어떤 신도가 원래 땅속에 묻어있던 부처님을 흙에서 보고 찾아냈음. 언제것인지 알수가 없고 돌부처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몸자 표시가 있음. 제보자 해삼삼님.
4. 돌부처=전남 담양읍 금원리 연화사 옆에는 불상이 산재해 있음. 현재 확인된 불상은 2구로 이 근처에는 더 많음. 금성산에 한개가 있고 무정면에 위치한 밭옆 길가에 또 한개가 더 있음. 제보자 삼원삼님.
5. 약사여래불=전남 무안읍 성동리 약사사에 모셔져 있는 약사여래불은 원래 사찰터에 버려져 있던 것을 사찰안에 모시고 있다. 높이가 3m89cm 폭이110cm이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학술적 고증이 미비하다. 제보자 용암삼님.
6. 비로자나불=경북 영천시 완산동 봉정사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근교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보시한 것.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다. 제보자 화담삼님.
7. 전남지역 석불=곡성 석곡과 죽산리 석불입상, 승주군 주안면 석불입상, 장동면 등천리 석불입상, 구례 만야사 석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함. 제보자 성준경 곡성읍과미출장.